

中道와 中庸(續)

金海潤

二, 中 庸

中庸의 中思想이 支那古代로 불어 傳來하여 爾來諸儒가 繼承하여야오는 一貫 紹述하는 道理라 함은 以上에도 말한바 어니와 이 中思想의 淵源은 堯舜以前에도 잇었는듯하다. 그러나 文獻에 現著함은 帝堯時가 嚆矢인듯하다. 이 中思想을 同一한 意味로써 中庸이니 中和이니 稱한다. 宋以前에는 倫理的實踐的 意義만 가지고 잇는것이 佛敎의 禪風이 支那天地에 大揚할때 從來 支那固有의 儒敎는 當時 佛敎 特히 禪風에 侵■化益을 받은배되야 所謂 宋學이 일어남에 及하여서는 이 中庸의 說이 宋學의 性說에 關聯되야 哲學的色彩를 濃厚하게 띄게 되었다. 다음에 帝堯로 불어 支那歷代 中思想에 對한 一般 聖者 賢者와 名儒 賢者의 學說을 順次 列舉하여 其發展過程을 陳述하갓다.

(1) 堯舜禹와 中庸

堯와 舜은 古來로 支那民族이 理想的 君王으로 欽慕崇仰하는 二大聖者이다. 今歲의 學者들사이에는 堯舜을 歷史의 人物이 아니니 어떠니하여 理論이 紛紛하나 그것은 本題와 直接無關함으로 歷史의 人物與否는 그만두고 何如間 自古로 傳來하는 그들의 中思想만을 말하면

堯가 其■ 舜의 大位를 讓할때 注意戒飭하여曰

「天之曆數 在爾躬 允執厥中」

이라 하얏스니 이말은 書經과 論語에 잇는바 一國의 寶祚를 傳授함에 臨하여 何必如斯히 「中」으로 戒飭함을 볼때에 우리는 當時에 있어서도 이 中思想이 人生處世에 治民行政에 重大性을 가진 大道이었으며 堯의 代表的思想이었음을 斟酌할수 있다.

舜이 禹의 繼位를 傳할때 戒飭함도 書經에 잇으니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情惟一 允執厥中

이라하여 무엇보담도 中을 말하였으며 또 臣下 中 夔라는 賢人으로써 典樂이란 職을 맡기어 人民의게 四德을 가르쳤다 하는바 이 四德은

直而順 寬而栗 剛而無虐 簡而無傲

라는 네가지인데 모다一方에 偏僻함을避하고隱然이中庸의德을 말한것이다. 舜의臣下中에도 皋陶라는사람은 이四德을 조금發展하여 九德을說明하였는데 寬而栗 柔而立(堅) 愿而恭 亂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無傲) 剛而塞(無虐) 强而義

라하였다. 이四德과九德의說은 한가지書經에있다

禹는 有名한九年洪水의 大水災를當하여 親히治水의任에當하여 「過門不入八年」이라는 明君이다. 後世支那에 兼愛利他家로 有名한墨子が 甚深히禹를 崇信한만큼 兼愛交利主義者이며 實踐의帝王으로 이름이높다. 그러한바 이大禹의政治와道德의根本信條는 그의洪範九疇라는 九個條의大法이있으니即

五行 五事 八政 五紀 皇極 三德 稽疑 庶徵 五福

等인바 餘他の說明은 此에不必要함으로 省略하고 其中 第五即九疇의中央에 位를占한 皇極의意味는 皇은大 極은中 即「大中」이란意義이다. 禹는이洪範九疇中에서도 第一皇極을 爲主信行하였다하며 딸아서 其位置도中央에 두었슴이 相當한內容을表示함이라한다.

(2)孔子와中庸

儒敎의大聖 孔子의中庸觀은 어떠한가? 中庸에있는말과같이 孔子는 祖述堯舜하고 憲章文武라하였다. 이것을보와도 또孔子의生國이 路入나라 即周公所封의國인만큼 堯舜以來 政治와道德兩方面에 ■則이되야 내려오는 이中思想을 傳受하였을것을 우리는推理할수있다. 그러나推理만으로써 完全한知論은 못되나니 以下에그의學說을穿鑿하여보자

孔子의道를말하는者-大概一貫之道를 말하나니 即論語里仁篇에 孔子-曾子(名參)의게

「參乎 吾道一以貫之」

라고 말삼하신거와 또論語衛靈公篇에 孔子께서 子貢(名賜)의게

「賜也 女(汝)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 對曰然 非與 曰非也 予一以貫之」

라한等を 後世學者- 많이引證하여 이一貫之道로써 孔子의道로認定한다. 그러나 하나 大關節 이一貫之道라는것은 무엇을 指稱하는것인가

古來로學者의 解釋이紛紛하여「仁」이니「中庸」이니 「忠恕」이니 「禮」이니한다. 孔子의學說中에 우리는 處處에仁을말삼하고 禮를말삼하였스며 忠恕의主張을 볼수있다. 그러나 이것等은部分的이오 孔子의 全思想域에遍在하여 있는것은이中庸이 代表的이라할것이다.

孔子의 全思想의部分細目を 檢討함은 煩雜한事情上그만두고 그의敎育主義와 政治思想을 略述하여 一般中庸의임을 引文辨證하겠다.

孔子的教育主義

孔子的教育主義는 啓發的이며 또 中庸的이니 前者는 本題와 關係가 없으므로 除去하고 後者만 말허겠는바 다음에 여러 弟子들의 孝에 對한 質問에 孔子의 答하심을 보라 모다 論語에 있나니

「孟懿子問孝 子曰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無違 曰何謂也 子曰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子夏問孝 子曰色難 有事弟子服其勞 有酒食先生饌 曾是以爲孝乎」

「孟武伯問孝 子曰父母唯其疾之憂」

「子游問孝 子曰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何以別乎」

如斯히 孝에 對하야 한 問題에 對한 解答이 붓는 사람 달아 맛도 即其 問者에 알맞도 各各 달으게 가르치셨다. 相應 病與藥이며 隨機 說法의 教育 方法이 었다. 이얼마나 中庸의 教育 主義 잇스며! 이얼마나 中思想에 合致되는가!

孔子的政治思想

孔子가 周公을 여러 번 꿈에 보왔다 하는만큼 周公의 禮樂刑政을 본바듬이 만 잇스며 떨어져 治民 行政에도 法治 主義 보담도 德治 主義를 採用하야 德으로 政治의 標準을 삼엇나니 論語爲政篇에

「子曰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이라하엿다. 이얼마나 刑罰로서 法으로서 다시림보담 德治 主義의 優越性을 말 삼함인가 그런데 이德이라함은 무엇을 가르침인가 論語 雍也篇에

「子曰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라하엿는것을 보면 두말할것없이 이德이라함도 中庸을 指示함이 明若 觀火 한 것이다.

이와같이 孔子는 政治에 있어서도 德治 主義를 主張하엿는데 이德은 卽 中庸인 바 中庸의 政治를 가장 良好한 政治임을 말삼하섯다.

이로써도 우리는 充分히 孔子의 全思想이 中庸的이였음을 알수있으나 다음 論語와 中庸에 있는 두어 句節을 加味하야 더욱더욱 그의 中庸觀을 探索玩味하자 論語 先進篇에

「子貢問曰師(子張)與商(子夏)也孰賢 子曰師也過 商也不及 曰然則 師愈與 子曰過猶不及」

이라하야 賢者를 論함에 子張은 中庸의 道理에 過하고 子夏는 中庸의 道理에 不及함을 말하야 다-不合格함을 答하섯다. 論語 子路篇에

「子曰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

라하엿스며 中庸에는

「子曰天下國家可均也 爵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庸不可能也」

라하야 모다 中庸의德用을 讚嘆不已하였다. (未了)